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5일 충북 진천선수촌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대표 최민정을 비롯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D-29

“金 1~2개 목표? 메달보다 값진 투혼 기대하세요”

쇼트트랙 등 6개 종목 60여명 출전 ... “성적 신경 쓰지 않고 최선 다하겠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어두운 성적 전망에 대해 “성적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5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체육회가 밝힌 선수단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대표팀 김보름(강원도청)은 “선수들은 모두 개인 목표를 세우고 대회에 임한다”라며 “대한체육회에서 설정한 목표는 선수 개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캡’의 리드 김선영(강릉시청)도 “대한체육회가 예상 금메달 개수를 적게 잡았다고 우리가 메달을 못 따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부담감이 줄었다. 실망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메달획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목표를 “금메달 1~2개”라고 발표했다.

효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각종 내홍과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이 급감한데다, 스킨레톤 등 평창올림픽 금메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 목표는 금메달 1~2개, 종합 15위”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금메달을 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2006년 토리노 대회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6개씩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8년 평창 대회에서도 5개의 금메달로 종합 순위 7위를 기록했다.

대한체육회는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해당 목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은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한 1988년 캘거리 대회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

선수들은 어두운 전망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쇼트트랙 ‘말형’ 곽윤기(고양시청)는 “여자 1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과 남자 500m 황대현, 남자 계주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은 “월드컵 대회 출전 이후 자가격리를 해서 선수단의 컨디션은 떨어져 있지만, 준비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중에선 내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데, 꼭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고 다짐했다.

컬링 김선영은 “평창올림픽에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차근차근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개최식 등 공식 행사와 선수촌에서 입을 한국선수단의 단복을 공개해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한국은 5일 현재 3개 종목 5개 세부 경기에서 32명이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체육회는 이날 말까지 출전권을 추가로 확보해 6개 종목 약 60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한다.

/연합뉴스

엄지성 “손흥민과 함께 뛰는 꿈의 기회 놓치지 않겠다”

벤투호 친선전 대표 선발 광주FC 동계훈련에 참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막내’ 엄지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광주FC의 엄지성은 지난 3일 창원에서 시작된 팀의 동계훈련에 참가해 2022시즌을 위한 사동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프로 데뷔’라는 목표를 가지고 긴장 반 기대 반으로 동계훈련을 시작했던 엄지성. 프로 무대의 꿈을 이룬 그가 이번에는 더 큰 목표를 올려다보면서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맺었다.

엄지성의 또 다른 목표는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이다. 자신의 오랜 소원이자 꿈이, 한발 더 눈앞에 다가왔다.

프로 데뷔 시즌 37경기에 출전해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광주의 미래로 떠오른 그는 최근 발표된 아이슬란드, 몰도바와의 친선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선수 26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2년생 막내로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룬 그는 K리그저돌이 구성된 이번 대표팀에서 ‘생존’을 위해 달린다.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육성이 가려지고 25일 해외파 선수들과 함께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치를 선수들이 레바논으로 이동하게 된다. 레바논 행 티켓을 얻게 되면 엄지성은 자신의 우상인 손흥민을 만날 수 있다.

엄지성은 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독하게 원발 훈련을 하면서 손흥민처럼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선수가 됐다. 금고과 시절인 2019년에는 손흥민의 원더골과 꼭 닮은 70m 질주 골을 넣기도 했다.

엄지성은 “아직도 국가대표라는 게 실감이 안나고 기분이 좋다. 소집 하루 전 정도 돼야 실감이



광주FC의 엄지성이 오는 9일 국가대표팀에 소집돼 친선경기를 위해 터키로 떠났다. 사진은 지난 3일 창원 동계훈련 출발에 앞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 ‘대표가 됐구나’ 생각이 들 것 같다(웃음)”며 “좋은 기회를 받은 것 같다. 축구선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는데 21살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엄지성은 벤투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패기를 무기로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줄 계획이다. 엄지성은 “양발 슈팅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겠다. 직접 프리킥, 공스로잉도 보여드리고 싶다”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좋은 기회가 온 만큼 재미있게 하겠다. 또 잘했을 때는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재미있게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막내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번 대표팀의 ‘말형’ 이흥(전북현대)과는 무려 16살 차, 엄지성은 형들을 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울겠다는 각오다.

엄지성은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한술밥을 먹으면서 경기를 한다는 게 영광이고 재미있을 것 같다. 많이 배울 것 같다”며 “선수들 마다 배울 면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먼저 형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대표에 앞서 그는 광주FC 선수이기도 하다. 2년 만에 강등 운명을 맞은 광주는 K리그2에서 도전의 시즌을 보내게 됐다.

올 시즌 광주가 가장 기대하는 자원 중 하나가 엄지성이다.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 전면에 서서 팀의 승격을 이끌어야 한다.

엄지성은 “비록 강등됐지만 다시 승격해서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동계훈련부터 잘 준비하겠다. 시즌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베테랑 중앙수비수 안영규 영입

베테랑 수비수 안영규(32·사진)가 친정 광주FC로 복귀했다.

광주FC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안영규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 금고과 출신인 안영규는 올해로 프로 11년 차의 베테랑 중앙수비수다.

185cm·79kg의 체격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대인마크와 헤더,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며,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에 강점을 보이는 등 공격전개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

수원과 대전을 거쳐 2015년 광주 유니폼을 입은 안영규는 현직적인 수비와 수비라인 조율로 팀의 1부리그 잔류 주역이 됐다. 또 강렬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2018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광주를 이끌기도 했다.

이후 성남으로 이적한 안영규는 안정된 수비로



팀의 3년 연속 잔류에 힘을 보태는 등 맹활약했다. K리그 통산 195경기 에 나와 4골 4도움도 기록하고 있다.

3년 만에 광주로 복귀한 안영규는 “광주 팬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려 기쁘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라며 “고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나부터 더 솔선수범하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안영규는 창원에 마련된 광주의 동계훈련 캠프로 이동해 2022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심장 이상 에릭센, “카타르 월드컵 출전이 목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경기 도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크리스티안 에릭센(30·덴마크)이 오는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5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릭센은 덴마크 방송 DR과 인터뷰에서 “나의 목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는 것이다. 그것이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대표팀 발탁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나의 꿈은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9승 1패로 조 1위를 차지하고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 인터 밀란 소속이던 에릭센은 지난해 6월 덴마크 코펜하겐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20 조별리그 핀란드전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경기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심장 제세동기를 단 채로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뛰 수 없어 결국 지난달 인터 밀란과 계약이 해지돼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스위스 3부 리그 팀 키아소에서 훈련하며 그라운드 복귀 준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센은 “내 심장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